

문화전당재단 인사 파문 증폭...정부, 해결책 마련해야

광주시·시민사회·문화계 “불통·영터리 인사” 비판 ACC 정상화 적신호...지역 정치권 임명철회 촉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문화전당재단) 신입 경영진 인사를 둘러싼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문화전당재단이 아시아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토대로 콘텐츠를 보급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번 초대 이사장과 초대 사장 인사는 문화전당재단의 위상 및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통과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은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ACC)과 아

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인 문화전당으로 통합하고 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해 콘텐츠 유통, 문화관광상품 개발, 편의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 법인으로 통합돼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견인하기 위한 조성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 지역사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새롭게 설립·출범하게

된 문화전당재단은 지역사회의 기대와 염원이 담긴 기관으로, ACC 활성화에 비롯해 문화서비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하지만 이처럼 지난한 과정을 통해 닦을 올렸지만 문화전당재단은 신입 경영진 선임부터 광주시와 시민사회·문화계로부터 “불통 인사” “영터리 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ACC 정상화는 물론 향후 역할에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은 19일 통화에서 “문화전당이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그동안의 지난한 통합 과정이 떠올라 착잡했다”며 “이번 경영진 인사 발표를 보고 어이가 없어 역량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18일 문체부 차관이 찾아와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광

주시민 이목도 있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니 대안을 제시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도 비전문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하는 등 파문이 연일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초대 아시아문화전당 재단 이사장·사장 임명 철회를 주장했다.

시당은 “문화·예술은 그야말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면서 “그러면 비전문가에게 재단을 운영하라고 하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를 내정해야 한다”며 “전당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문화·예술의 발전을 고려해 잘못된 인사 내정을 철회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문화단체도 20일 오후 2시 광주시동구 전일빌딩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들은 이사장과 사장의 임명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결정됐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17일 문화전당재단 이사장에 최영준 전 광주문화방송 사장을, 사장에 김선옥(사)문화예술협회 이사장을 선임했다. 문체부 산하 조성사업 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문화전당재단을 이끌 다양한 역량을 감안해 지역예술단체, 광주시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복수 후보자를 올려 장관이 임명을 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주차타워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 19일 광주 광산구 하남3지구 내 제2공영주차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검사를 받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가파른 확산세 오미크론 확진자도 재택치료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도 19일부터 재택치료를 받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허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확산을 우려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무증상이나 경증이라도 원칙적으로 병원이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하도록 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본격화하자 오미크론 감염자도 델타 변이 감염자와 마찬가지로 재택치료를 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오미크론 확진자 대다수가 무증상 또는 경증을 보이는 것도 고려됐다.

당국은 이날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되, 선택과 집

중을 위해 생활치료센터는 위험성이 있는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으로 집중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동네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를 내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수본 관계자는 “재택치료 기간 중 동거인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호흡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반드시 집안에서도 KF94 마스크를 쓰고 주기적인 환기를 해 달라”고 말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에서 재택치료를 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만7283명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그린수소 메카 도약...2031년까지 19조 투입

‘수소산업 육성 종합계획’ 발표 7대 전략 27개 추진과제 선정

전남도가 19일 향후 10년간 19조원을 넘게 투입하는 수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린뉴딜 핵심 프로젝트로 역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과 연계해 국가 그린수소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린수소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7대 전략과 27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올해부터 2031년까지 19조346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도내 1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역의 우수한 산업환경과 전국 최고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국내외 수소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수소 전용 항만터미널 구축 ▲수소차 5만1000대 및 수소충전소 38개소 구축 ▲2031년부터 연간 그린수소 97만톤을 생산할 구상이다.

2025년까지 1단계 도입기에는 그린수소 전주기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생산 준비에 집중한다.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수전해기술 연구개발(R&D) 선점을 위해 ▲수전해 시스템 신뢰성 제고 기술개발 ▲e-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실증 인프라 구축 ▲그린수소 수전해 인증센터 구축 등 5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2단계 정착기에는 그린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생산기지를 중점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소특화단지 조성 ▲대용량(3MW) 수전해스택 기술개발 및 실증 ▲그린수소 생산 해양선박 구축 ▲수소 분석센터 구축 ▲장시간 운용 드론 연료전지 실증 구축 등 12개 세부과제를 실행한다.

2031년까지 3단계 확산기에는 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 등 전주기 가능한 그린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마친다. 이를 위해 ▲그린수소-암모니아 전용 항만터미널 구축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수소차-충전소 지속 보급 ▲탄소저감형 메탄을 합성 실증 등 1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과 강점을 연계해 전남 권역별로 추진전략을 분산한다. 동부권은 여수석유화학산단과 광양만권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수소 전주기 시스템과 연관산업을 집적화할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그린수소-암모니아 수입 전용 항만 등을 구축하는 거점으로 중점 육성한다. /윤현석 기자 chado@

섬진강 수해주민들, 조정위 48% 배상 결정 수용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제방 붕괴로 수해를 당한 구례·곡성·광양·순천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48% 배상 결정을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 당초 ‘반쪽짜리’ 배상이라며 반발했던 주민들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루한 소송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구례·곡성·광양·순천 등 수해지역주민들은 섬진강댐 하류 지역 수해피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액 대비 48% 배상 결정에 대해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민의 수용 결정은 중조위의 결정이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미수용 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부담과 그동안 피로감이 누적돼 빠른 일 상회복을 바라는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배상금 지급절차를 진행해 일상회복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또한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피해지역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 정비 등 방재사업을 적극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도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2차 심사 시 1차 결정에서 누락된 2784명에 대한 현실적 보상결정이 이뤄지도록 위원회와 환경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권고안은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댐 방류에 따른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등 4개 시군의 피해를 인제(人災)로 규정한 피해주민 대책위에서 3607명에게 203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중조위에 신청함에 따라 나온 것이다.

당시 집중호우와 함께 댐 방류로 도내 10개 시군이 전문학적 재산손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중조위 1차 조정 결정문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등 4개 시군 피해주민 823명에게 100억 원을 지급하되, 시군별로 기관별 분담비율을 달리 배상토록 권고했다. 실제로 환경부·국토교통부는 50·73.5%, 수공 25%, 전남도 및 4개 시군은 각각 0.75-12.5%를 배상해야 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임야 샵니다
지분환영
중개환영. 010-8902-7900

제일오피스텔 금매
수기동, 20층 중 8층, 33평, 코너
시세 1억→금매 8천만원, 1/31까지
소유자 직매.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톤외벽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 2. 전원주택 부지와 식재림 조성 20여년생 8중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곡,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중 1천5백여주 조성 가능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중)**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공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 9십만원
-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함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통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달달생
전원주택지 귀촌·휴양지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용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능가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광주 010-3454-2389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이닝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역안내 ·

북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안 222-9054 · 중 정 222-8171
남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